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무외 선사 '無位閑'

선사의 법명은 선영(善影), 자는 무외(無畏), 법호는 영허(映虛), 당호는 역산당(亦樂山堂)이다. 속성은 임(林) 씨이며, 아버지는 득원(得元), 어머니는 조(趙) 씨이다. 조 씨는 어느 날 꿈에 불상에서 서광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잉태하여, 조선 정조 16년(1792) 3월 23일 한양성 운현현(雲現現 : 지금의 운현동)에서 선사는 탄생하였다.

12세에 경기도 양주 학림암(鶴林庵) 용운승행(龍雲勝行) 선사 문하에 나아가 삭발염의하였고, 구족계는 성암덕함(聖巖德函) 선사에게 받았다. 그 후 선사는 화악지탁(華岳知濯) 선사에게 수참(修參)하였다. 21세 되던 해 한여름 천둥번개를 동반한 장대같은 비가 내렸는데, 3일째 되는 날 벼락치는 소리에 확철대오(廓徹大悟)하였다.

무위한(無位閑 : 몸도 마음도 없는 것)

인봉덕준(仁峯德俊) 선사의 법맥을 이은 선사는, 이후 주로 남쪽 지역에서 보내다가 중년이 되어 함경도 안변 석왕사 내원암에 들어가 입적하실 때까지 주석했다. 선사는 당대 최고의 선지식으로 찾아오는 발길이 끊이지 않아 정진에 방해가 되므로 한적한 별원에 머물렀다. 그러나 선사에게 학문을 닦고 수참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납자들이 마치 여름 하늘의 구름 같았으며, 의발을 전해 받은 납자는 겨울에 눈 덮힌 산처럼 빼어났다.

선사께서는 정법안장(正法眼藏) 즉 바른 지혜의 안목을 확립하여 불조(佛祖)의 법등(法燈)을 전하였다. 선사께서 선설(禪說)한 활구(喝句)는 늘 깨어있으며 신령스레 어둡지 않은 것이었다. 그것이 마음이며, 뭇 신묘함을 머금고 온갖 곳으로 흘러도 결코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것이 성품이다. 이 마음과 성품을 좇아서 쉬지 않고 분별하는 것이 정(情)이라 한다. 성품은 마음의 바탕이고 정은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과 성품은 광범위하여 만물에 이르기까지 어디에고 있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이 마음이란 마치 창공에 떠 있는 달과 같아서 구름이 걷히면 밝고, 구름이 가득하면 어두운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마음은 보통사람들이라고 해서 오염되지도 않고 성인이라고 해서 깨끗하지도 않다. 마치 물과 물결처럼 비록 맑은 물, 흐린 물로 구별되더라도 물의 젖는 속성은 마찬가지다. 비록 그렇지만 이 한 물건은 마치 금강동자(金剛童子)와 같아서 천 번 태어나고 만 번 죽는다 하여도 그 경지가 변함없고 육도사생(六道四生)을 윤회하여도 그 모습 바뀌지 않는 법이다. 그것을 깨달으면 성인이고 그것을 못 깨달으면 보통 사람이다. 선사께서는 그것을 깨달아 가르침을 통해 우리 중생들에게 안락한 저 열반의 세계로 들게 하였다. 선사께서는 마음과 성품과 정(情)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 물건의 불멸하는 진리를 일깨워주었다.

선사께서는 고종 17(1800)년 설봉산 내원암에서 세수 89세 법랍 77세로 입적했다. ■경주 해회선원 회주

흰머리 검은승복 게으른 늙은이

마침내 한 경지 다다르고 보니…

松窓土壁溪邊地(송창토벽계변지)
白首緇衣懶一翁(백수치의나일옹)
意到忽然心自樂(의도홀연심자락)
朗吟閑步任西東(랑음한보임서동)

창밖에 푸른 솔이 보이는 시냇가 초암에,
흰머리 검은 승복 게으른 늙은이 하나.
마침내 한 경지 다다르고 보니 마음절로 즐거워,
낭랑한 목소리로 경 읊조리며 한가로이 거니네.

월파공(月破空 : 깨달음의 소리)

卓立庭前栢(탁입정전백)
長靑直聳空(장청직용공)
影從千古月(영종천고월)
聲任四時風(성임사시풍)

우뚝 선 뜰 앞의 잣나무,
창공으로 솟은 늘 푸른 모습.
천고의 달빛 따라 그림자 드리우고,
사계절 바람 좇아 소리를 낸다.

韓-中 큰스님 대담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 VS **정혜스님** 백림선사 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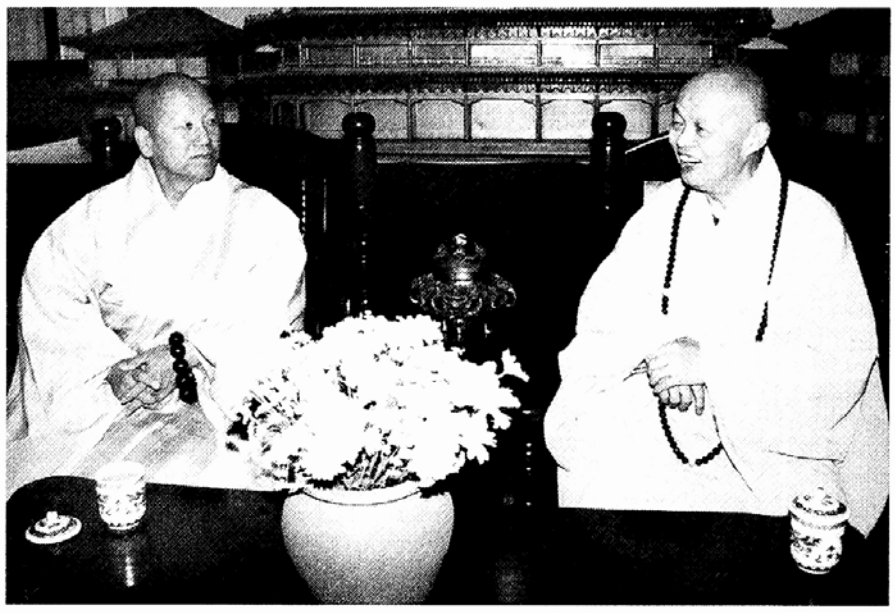
'차나 한잔 드시오(喫茶去)'는 '선다일미(禪茶一味)'의 연원이 된 화두로 1200여년전 당나라 때 조주(趙州, 778~897)선사에 의해 보편화된 화두다. 중국 하북성 조주 관음원(觀音院)에서 선풍을 드날렸던 조주선사는 중국 선종을 남종선으로 통일시킨 마조(馬祖)선사의 증손이 되는 위대한 선승. 한국 선종의 사자산문을 연 철감도윤(澈鑑道允) 선사와 동문수학한 법형제간으로 한국 불교와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다.

19일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서옹스님을 비롯한 한국 불교계가 뜻을 모아 '조주선사 선차기념비'를 조주 관음선이 자리했던 백림선사 경내에 건립한 것은 한중간의 황금우호를 더욱 돈독히 하고 선종의 수행가풍을 새롭게 드날리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선차기념비 낙성식을 겸한 한중 차도(茶道) 시연(表現), '선다일미' 학술대회와 함께 지월루(指月樓)에서 진행된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과 백림선사 방장 정혜스님의 '한중 고승 대담'은 한중 선종의 뿌리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스님은 조주선사의 '구자무불성(狗子無佛性)' '정전백수자(庭前柏樹子)' 등의 실참 화두로 선을 생활화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 새로운 시대 인류의 정신문명으로 승화시키자는 서원을 드높였다. 대담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 주〉

"禪법맥 한 뿌리 후세에 영원토록"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왼쪽)과 백림선사 방장 정혜스님은 19일 백림선사 경내 지월루에서 대담을 갖고 조주선사의 '선다일미' 사상을 계승하고, 조사선의 선풍을 중흥시키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정혜스님=한중 양국의 뜻을 모아 조주선차 기념비를 조주탑(趙州塔) 앞에 세우게 된 것은 천추에 길이 남을 역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조주선차 기념비 건립은 2년전 불교춘추사 최석환 거사가 발의하여 고불총림 방장 서옹스님과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을 비롯한 한국 불교계와 명원문화재단이 힘을 합쳐 조주탑 앞에 세우자는 제의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쾌히 승낙을 했었습니다.

진제스님=하북성 조현(趙縣) 땅은 1200여년 전에 '끽다거' 공안으로 천하 사람들의 눈을 열게 했던 조주선사가 선풍을 드날렸던 선기어린 유적입니다. 오늘 한중 양국의 황금우의를 다지는 조주선차 기념비 제막식이 있기까지 자비를 베풀어주신 선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혜스님=백림선사는 옛 조주 관음원으로 조주선사가 끽다거로 평상심의 도를 실현해 오면서 널리 중생을 제도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백림선사의 지침이 되고 있는 '각오인생(覺悟人生), 봉헌인생(奉獻人生)'과 너무나 일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주선사는 신라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사자산문을 연 철감도윤 선사와 법형제간으로 선다일미의 정신이 신라로 이어진 것을 볼 때에, 한국불교는 중국불교와 매우 인연이 깊습니다. 중국의 선맥이 임제로부터 석옥청공, 태고보우로 이어졌듯이, 한국불교는 중국불교와 혈연 이상으로 가깝다는 점이 제가 받은 가장 큰 인상입니다. 특히 한국 조계종이 중국 당대의 선종을 표방하면서도 독특한 한국적인 선의 풍토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제스님=중국 불교는 당송대에 선의 황금기를 맞았고, 현대에 와서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존폐의 위기에 처했지만 허운(虛雲, 1850~1959)대사에 의해 되살아났습니다. 정혜 선사께서는 근세 중국 선종을 일으킨 허운대사의 법제자이십니다. 중국 선종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혜스님=중국불교의 장점은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 하는 백장선사의 청규정신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선병행(農禪竝行)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 방장 이하 전 대중이 규칙적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성마다 불학 및 선학연구소를 만들어 활발하게 경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불교는 선종뿐 아니라 염불, 정토종과 화엄종이 있지만 앞으로는 참선을 중심으로 하는 선불교가 주류를 이룰 것입니다. 중국 불교는 그간 거사불교가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당대의 위대한 거사인 방(龐蘊)거사로부터 근세의 양인산(楊仁山), 양계초(梁啓超)를 비롯 지난해 작고하신 조박초(趙朴初)거사에 이르기까지 거사불교가 선종을 떠받쳤습니다. 또한 허운대사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단절되어버린 위앙종과 운문종을 부활시키고 임제, 법안, 조동의 전 종풍을 이었습니다. 오늘날 중국 불교를 이끌어가는 선지식이 대부분 허운문도인 까닭은 이 때문이지요.

> '一日不作 一日不食' 백장청규 계승 중국불교의 장점
>
> 정혜스님

진제스님=허운대사는 56세 때 양주(陽州) 고민사(高旻寺)에서 59일째 용맹정진 중, 뜨거운 찻물 때문에 떨어뜨린 잔이 깨지는 소리에 의심의 뿌리를 모두 끊었습니다. 〈범망경〉을 널리 강의했던 스님은 종문의 심인(心印)을 깊이 깨달아 국내외의 법난 속에서도 승가를 외호하고 사찰을 수호했습니다. 세수 120세에 길상와(吉祥臥) 자세로 입적한 허운대사께서 강조한 수행방편은 어떠했습니까?

정혜스님=종문(宗門)은 '자성을 밝게 깨쳐 본래 성품을 환히 보는(明悟自心 澈見本性)' 참선을 위주로 합니다. 하지만 은사스님께서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 다시 말해 모든 방편문이 다 묘한 법이며, 모두가 생사를 해결하여 성불할 수 있는 길이다. 다만 그 사람의 근기에 적합한가 아닌가가 문제될 뿐, 굳이 법문의 높고 낮음을 구분할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에 전해지고 있는 법문은 종(宗, 선종) 교(敎, 교종) 율(律, 율종) 정(淨, 정토종) 밀(密, 밀교)입니다. 이 다섯가지 법문은 사람마다의 근기와 성향에 따르기 위한 것이니, 어느 것이든지 한 문만 수행하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한 문에 깊고 깊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니, 오래도록 변함없이 나아가면 반드시 성취할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 '끽다거(喫茶去)' 천하 사람들의 눈 열게 한 공안
>
> 진제스님

진제스님=이 거룩한 백림선사 청정도량에 부처님의 심인법이 유전되어 조주선사에 이르러 크게 가풍을 드날렸습니다.

정혜스님=조주비를 세운 뜻은 한국과

四柱命理와 일반 五行術의 限界를 克服시킨
(사주명리) (오행술) (한계) (극복)

六壬來情秘法
(육임래정비법)

「活人專門天役者用」神示
(활인전문천역자용 신시)

改訂增補版

★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初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출생년월일시를 묻지않고도 온시간이나 전화해온 시간이나 가서 만난사람만 보아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먼저 알고 말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두슨 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천성이 악한지 선한지, ●나에게 이익주는 사람인지, 피해나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한 인지.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여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적시(摘示)해 놓아, 미리 그 정황(情況)을 지적하므로써 래인(來人)의 안색(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평이상하인(彬而上賀人)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는,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임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연이 성립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무슨 방위지, 지금 갈 수 있는 방위지, 옮고 있는 방위지, 어제부터 거도기 위해 될 것인지, 처음기 수정금물지 다무제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 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형사 당일에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온다면 몇시부터 올 것인지 등등을 매일 매시간 별로 적어 놓았습니다.

아래 책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 육임래정비법 (내가 미리 상대방의 사정을 꿰뚫어 버리는 비법) 350,000
- 육임세밀정단법 (묻는 용건에 대해 소상하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비법) 100,000
- 육임비요형이상법 (귀신침범·산소탈·빌미부정·일이 되는 날짜를 미리 아는 비법) 150,000
- 육임운명판단법 (사주를 몰라도 간단하고 정확히 운명을 감정해 낼 수 있는 비법) 130,000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오행(五行) 또는 법력(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신령·신시(神靈·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농단(弄斷)되지 않도록 스님·음양오행가·신명제자·의사 등 활인전문천역자(活人專門天役者)에게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달 : 입금 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므로 당일, 또는 그 이튿날 받아 보시게 됩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49호 일심빌딩 401호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이 책을 보십시오 반드시 큰 것을 얻으실 것입니다.
책값이 타(他) 역서(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 될 명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위 책들에 대한 설명회가 아래 지역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사오니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께서는 편리한 곳으로 접석하셔서 활인전역의 당오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서울	02-993-8680,	부산	011-558-5496
대구	053-641-2334,	인천	032-554-3789
전주	063-284-7714,	광주	017-613-7140
수원	031-242-8813,	청주	043-221-2557
대전	042-584-1709,	원주	017-377-7005

고복자 철학박사 曉 史 도서출판 卜 間 배상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승진사·구매사·시험사·구직사·결혼사·임신사·가정사·이주사·소송사·질병사·매매사·여행사·도난사·심인사·상면사·채용사·투자사·승부사·가격사·농경사·묘지사·기후사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